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광저우 도착한 박태환-이용대 아시안게임 한국대표팀 본진이 9일 중국 광저우 바이윈 공항에 도착한 가운데 기수를 맡은 박태환과 이용대가 마주보며 태극기를 들고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13일 사격서 '골드 스타트'

아시안게임 D-2

세계적 총잡이 진종오 권총 50m 개인전 첫 금 겨냥
선수단 본진 결전의 땅 입성… "종합 2위 문제없다"

한국이 사격에서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종합 2위 수성을 기치로 내걸고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이 오는 13일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세계적 권총 사수이자 한국 사격의 간판 진종오(31·KT). 진종오는 이변이 없다면 13일 오후 2시(이하 한국시간)부터 열리는 남자 50m 권총 결승에서 금메달에 도전할 전망이다.

그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50m 권총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최근까지도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왔다.

진종오와 그의 국내 라이벌 이대명(22·한국체대), 이상도(32·창원시청)가 함께 출전하는 남자 50m 권총 단체전도 선수단에 금메달을 선사할 후보로 꼽힌다.

사격에서 금메달이 불발하면 오후 4시에 시작되는 유도 결승전에서 금메달 물꼬가 터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국 선수단은 유도 남자 100kg 이상급의 김수완(22·용인대)과 여자 78kg급 정경미(25·하이원)가 결승전에 오를 경기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유도에서도 금 사냥에 실패한다면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댄스스포츠에서 금메달이 조심스럽게 타진된다.

한국은 남상웅(26·댄스스포츠연맹)-김원경(19·대구시체육회)의 스탠더드 탱고, 조상효(28·댄스스포츠연맹)-이세희(24·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의 스탠더드 왈츠, 남상웅-송이나(23·댄스스포츠연맹)의 스탠더드 슬로우폭스트롯, 이상민(22)-김혜인(22·이상 댄스스포츠연맹)의 스탠더드 퀵스탭에서 우승이나 준우승을 기대하고 있다.

대회 개막 전에 열리는 축구를 제외하고 사실상 대회 첫 날인 13일에 금메달이 나오지 않으면 한국은 바로 다음날인 14일 사격과 사이클, 수영 등에서 다시 금빛 낭보를 기다리게 된다.

장선재(26·대한지적공사)는 낮 12시 30분 남자 사이클 개인추발에서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진종오와 이대명, 이상도는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남자 사격 10m 공기권총에서 13일에 이어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유도 남자 81kg급에서도 김재범(25·한국마사회)이 컨디션이 좋다면 오후 4시부터 열리는 결승에 올라 금빛 메치기를 꽂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같은 시간에 여자 70kg급 황예슬(23·안산시청)과 남자 90kg급 이규원(21·용인대)도 결승에서 선전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사이클과 유도에서도 기쁜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수영스타 박태환(21·단국대)이 확실한 해결사로 나서게 된다.

박태환은 돌발 변수가 불거지지 않는다면 오후 7시 25분부터 자신의 주종목 가운데 하나인 자유형 200m를 치르게 된다.

한편 4회 연속 종합 2위에 도전하는 광저우아시안게임 한국선수단 본단이 9일 마침내 결전의 땅에 도착했다.

본단 기수를 맡은 배드민턴의 간판 스타 이용대(22·삼성전기)가 태극기를 들고 나왔으며 박태환도 함께 도착했다.

광저우선수촌에 입촌한 한국선수단은 이로써 18개 종목 330여명으로 늘어났다. 한국은 10일에도 야구와 유도, 역도, 배구, 남자 핸드볼, 남자농구, 우슈, 당구, 댄스스포츠 등 9개 종목 150여명이 도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선수단 기수 화순출신 이용대
"금빛 스매싱 기대하세요"

한국 셔틀콕의 황태자 이용대(22·삼성전기)가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따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9일 한국 선수단 본진의 기수로 태극기를 들고 '결전의 땅' 광저우 바이윈 공항에 들어선 이용대는 "선수 대표인 기수를 맡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한다. 각오가 남다르기에 한국 선수단의 종합 2위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빛 윙크로 유명세를 치렀던 이용대는 이번 대회에서는 정재성(국군체육부대)과 호흡을 맞춰 남자 복식 금 사냥에 나선다.

이용대는 "정상적으로 훈련을 진행해왔다. 복식이 원래 주종목으로 그간 혼합복식과 병행했지만 팔꿈치 통증과 체력 부담 탓에 이번에는 남자복식에만 출전한다. 준비를 많이 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중국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항상 좋은 성적을 거뒀기에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희망한다. 4년 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못 땄기에 이번에는 꼭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다"고 포부를 나타냈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탈 때는 못 느꼈지만 막상 공항에 내리고 나니 긴장감을 실감한다"던 이용대는 선수촌에 짐을 풀자마자 곧장 훈련장으로 이동, 컨디션 조율에 나섰다. /연합뉴스

'한국산 해결사'로 일본 프로야구 지바 롯데의 우승을 일궈낸 김태균이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동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비신부에 AG 금 선물하겠다

'한국산 해결사' 김태균 귀국

'한국산 해결사' 김태균(지바 롯데)이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 9일 귀국했다.

일본 프로야구 지바 롯데의 우승을 이끈 김태균이 9일 오후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태균은 "초반에 좋았다가 중반 성적이 좋지 않아 아쉬움이 크지만 우승으로 좋은 마무리를 했고, 첫 시즌은 대체로 만족한다"면서 "우승을 차지해 너무 기쁘지만 부족한 점도 깨달았다. 약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3할 타율과 30홈런을 달성하겠다"고 일본에서의 첫 시즌에 대해 평가했다.

아시아게임을 앞두고 있는 각오도 밝혔다.

김태균은 "아시안게임에 가야하는 만큼 우승의 기쁨을 잠시 접어두고 아시안게임 끝난 뒤 금메달의 기쁨과 함께 한꺼번에 누리고 싶다"며 "여름에 체력적으로 고비를 맞기도 했는데 지금은 몸 상태가 좋다. 경기 전까지 잘 쉬면 체력 문제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12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김태균은 예비신부인 김석류(27) 전 KBSN 아나운서에게 결혼 선물로 금메달을 선물하고 싶다고도 언급했다. 귀국과 함께 대표팀에 합류한 김태균은 10일 오전 결전의 무대인 광저우로 출국한다. /연합뉴스